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2023년 8월호

연대

이번 소식지는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국제문화예술노동연합(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Cultural Workers in Solidarity with Ukraine, 이하 AWC)과의 협력으로 AWC와의 인터뷰를 수록하여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를 확장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SMB12에서 언급하는 ‘비영토적 매핑’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문화적 고립주의의 첨예화가 극심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종 경계 넘기를 위한 대안적 상상에 관한 것이다. AWC는 최근 몇 년간 비영토적 연대를 통해 상호의존적 전략의 언어를 만들고 있는 미술 콜렉티브이자 플랫폼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연대와 다양성에 관한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 AWC와의 인터뷰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공공 공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이동과 경계 넘기가 가능한 동시대 비엔날레의 대안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조한울(SMB) AWC가 어떤 콜렉티브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소개해달라.

막심 티민코(AWC) 처음에는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벨라루스의 독재와 문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기존의 공식 파빌리온이 아닌 ‘대안적 벨라루스 파빌리온’ 전시를 위해 벨라루스계 예술가, 큐레이터, 아트 매니저가 시작한 단체였다. 레나 프렌츠, 발렌티나 키셀로바, 안나 치스토세르도바, 안토니아 스테부르, 알렉산드르 코마로프, 욱사나 구리노비치와 나는 함께 2020년에 있었던 벨라루스 시위를 돌아보고 벨라루스의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 드라즈도비치 TV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였고, 벨라루스가 러시아 군대와 군 시설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면서 우리는 드라즈도비치 TV를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비도덕적이고 무감각한 행동이 되버릴테니 말이다. 초반에는 망연자실함과 충격에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자주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격을 돌아보고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 친척들이 속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큐레이터인 타티아나 코추빈스카와 나타샤 치차소바 두 사람이 합류했다. 우리는 함께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국제문화예술노동연합을 설립했고, 드라즈도비치 TV 플랫폼을 기반으로 둔 antiwarcoalition.art를 만들어 2022년 4월 말에 오픈했다. 이 새로운 플랫폼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멕시코, 튀르키예,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남아프리카 등 전쟁의 영향을 받는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작가 노트를 소개한다. 이러한 활동은 벨라루스인 작가들과 기획팀의 구성원 스스로 우크라이나의 공동 침략자가 되어버린 복잡한 현재 상황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antiwarcoalition.art가 경험을 공유하고 전 지구적 공생의 전략, 언어, 탈식민지화를 논의하는 연대의 네트워크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안나 치스토세르도바(AWC)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작가들의 작업과 작가 노트를 더 많은 관객에게 알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정치적 충돌과 탄압을 겪고 있는 나라의 문화 노동자와 예술가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한울(SMB) AWC는 온라인 플랫폼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다. 지리-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온라인 플랫폼을 대안으로 활용한 점이 흥미롭다. 오픈 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품을 제공받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작가들이 온라인으로 작품을 소개하는 참여 방식 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AWC와 협력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타티아나 코추빈스카(AWC)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더 이상 대안적 매체가 아니다. 오늘날 온라인 모델은 특별하지도 획기적이지도 않다. 이 세상에는 온라인 도구의 접근성과 방대한 파급력을 활용하여, 이 매체의 가능성과 구조를 적용하는 과학적이고 자료 보관이 목적인 예술적인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한다. 우리는 전쟁에 대한 소식을 최대한 빠르고 널리 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왔는데, 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포용하고 AWC의 수평적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플랫폼이 온라인에서만인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비예술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시, 토론, 상영회 등 다양한 행사를 꾸리고 있다. 가능하다면 우리 삶에 심리적, 정치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쟁에 관해 논리 정연한 언어를 찾는 대안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변화 중인 세상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예술적 자각 속에서 공동의 대안적 형식을 만드는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상) AWC,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NICHT Unser Krieg)》,
뒤셀도르프 벨트쿤스트지머, 2022.
작품(왼쪽부터): 헬무트 슈바이처, 사샤 쿠르마즈, 요한 비텐, 일바 가슬렌,
엘린 마리아 요한손, 크세니아 유르코바. 사진: 미리암 티에스. AWC 제공

(하) AWC,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NICHT Unser Krieg)》,
뒤셀도르프 벨트쿤스트지머, 2022.
작품(왼쪽부터): 히토 슈타이얼, 세르게이 브라트코프, 블라다 랄코.
사진: 미리암 티에스. AWC 제공

조한울(SMB) AWC는 방대하고 다양한 작품을 모은 미술관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중에는 작품의 주제나 맥락에서 반전, AWC의 선언이나 프로젝트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작품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온라인 컬렉션과 다양한 나라나 도시에서 활동하는 느슨한 조직 등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활동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안토니나 스테부르(AWC) AWC가 온라인 플랫폼인 동시에 토론, 강연, 전시, 상영회 등 오프라인 행사를 주관하는 네트워크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은 유연하고 살아있는 아카이브로 기능하지만, 정치적 도구로 이해되기도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총공격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일기조차 쓸 수 없었고 그런 상태로 2022년 12월까지 지냈다. 충격에 빠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기존의 말이나 개념이 충분치 않았고, 언어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AWC의 지향점 중 하나는 문화 노동자들이 모일 장소를 제공하고, 전쟁과 재난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토론과 생각의 교환, 경험의 나눔을 통해 용어 사전, 개념, 언어의 연결망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행사’ 간의 연결이 상호의존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AWC는 사람이 고립된 채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우리의 연결은 형이상학적 이미지나 사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국물 운송이나 정보통신 사업과 철도 시스템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전쟁이다. 예를 들어, 이 전쟁에서 초르노빌(러시아어로 체르노빌) 점령은 전 지구적 환경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연구자 소비틀라나 마트비엔코는 「전쟁 무기로서의 공해」라는 글에서 초르노빌 점령과 2023년 6월 6일 러시아 영토내의 헤르손 지역의 노바 카호프카 발전소에서 일어난 연이은 폭발을 분석한다. 마트비엔코는 “전쟁은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환경의 안팎 그리고 지리적 공동체 내에서 영양과 에너지 순환을 통해 상호 작용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전쟁, 시위, 억압, 봉기와 같은 다양한 과정들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말 베니스비엔날레 리투아니아 파빌리온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돌봄의 인프라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이란에서 온 문화 노동자들이 이 토론에 참여했고, 이란의 성공적인 봉기로 인해 러시아에 이란의 드론 판매가 중단된 일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이 두 나라는 3,0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호의존이라고 부르는 지점이다.

조한울(SMB) AWC는 근래 베니스비엔날레, 마니페스타, 도큐멘타 등 주요한 국제미술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런 활동이 AWC의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알렉산드르 코마로프(AWC) 국제적인 전시의 참여는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역사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보여줄 수 있기에, AWC의 핵심적인 미션이기도 하다.

우리는 중간 지대가 없는 전쟁 중에 있고, 누구도 이 싸움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으며, 미술계에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개념과 같은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실은 명확해진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 그 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전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은 더욱 치열해졌고, 전시의 상황은 여러 예술 기관과 컬렉션들이 오늘날 복잡한 생존적 의존 관계를 위한 새로운 제안들과 더불어 기관의 목적과 유산을 재평가하고 재정립하도록 강요한다. 팝업 전시와 토론행사들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와 타인에게 이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고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에서, 어떤 종류의 침략에도 맞서, 하루하루 우리의 목소리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조한울(SMB) AWC가 계획 중이거나 최근 진행된 프로그램의 주제 의식이 글로벌 환경 위기, 이주, 디아스포라, 탈식민주의, 전쟁과 권위주의, 인종주의, 차별과 배제, 포용과 돌봄, 페미니즘 등 최근 여러 비엔날레에서 주목하는 지점들과 겹쳐진다.

당신들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비롯된 ‘세력화’를 두렵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일부 우크라이나 작가는 러시아 작가를 보이콧하며 반전 운동의 연대를 호소했지만, 거꾸로 유럽의 전시 주최자들이 러시아 작가(사실상 우크라이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초청이나 스크리닝을 취소하면서, 사실상 반전 운동을 하는 러시아 작가들과 활동가들의 전시와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불상사로 연결되는 상황이 여럿 있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국적만으로 구분하기에는 지역간의 관계가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어쨌든 전쟁을 둘러싼 세력화나 경계가 더욱 거세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적이고 복잡한 관계들을 고려하며 활동하는데 고민도 깊었을 것 같다. 포용과 배제, 소속과 타자화 등 여러 대치되는 개념들 안에서 AWC의 액티비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안토니나 스테부르(AWC) 우크라이나 작가 알레브티나 카히제가 전쟁에서의 비인간 개체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던 도큐멘타 15에서 중요한 생각을 나눈 적 있다. 작가는 서구의 국가에서 되풀이되는 “환경 위기처럼 더 거대한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주목했다. 이 질문의 문제점은 마치 우리에게 우크라이나를 돕거나 환경 재난을 논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것처럼 거짓된 이분법을 생성한다는 데 있다. 현실에서는 전쟁과 더불어 초르노빌보다 더 방대한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 재굴 등 러시아의 행동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 생태계 전반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는 우리 모두의 상호연결성을 인지하고 이런 문제의 심각성의 구분 없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환경 위기를 강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타티아나 코추빈스카(AWC) AWC가 전 세계의 전쟁과 갈등을 멈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예술인의 집단으로 예술적 실천을 통해 전쟁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최소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예술이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묻고자 한다. 전쟁을 견뎌내려면, 적어도 세상이 이 전쟁에 대해 생각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질문하고 있다. 나는 잠깐이라도 타인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해 보고 불평등, 폭격, 고통, 폭력의 의미를 떠올려 볼 수 있는 장소로 연대의 관계망을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AWC 플랫폼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타자화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를 바란다.



AWC, 《유럽 파빌리온(The European Pavilion)》, 로마 괴테 문화원.
작품(왼쪽부터): 마리나 나프로쉬키나, 올라 소스노프스카야 & A.Z.H,
미콜라 리디이, 프란시스 엘리스. AWC 제공



AWC, 《유럽 파빌리온(The European Pavilion)》, 로마 괴테 문화원.
작품: 레만 세브다 다리지오를루, 〈어둠에서 온 유년기 동화〉. AWC 제공

조한울(SMB) 활동가이면서 예술가인 분들은 정답없이 문제 제기에만 그치기 때문에 무책임한 실천가라고 비판도 받는 딜레마가 있다. AWC는 명확한 지향점을 가진 행동주의적 콜렉티브로서,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 깊숙히 개입하여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가? 당신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에서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예술이 공동체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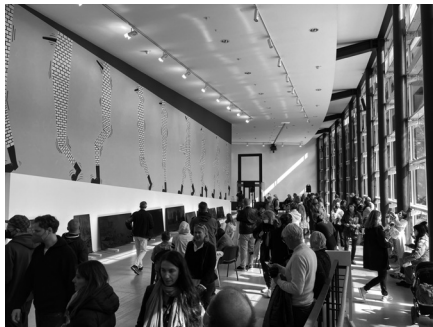
안토니나 스테부르(AWC) 미술사를 되돌아보면, 예술의 자주성이라는 개념, 예술이 고유의 밀폐된 공간에서 존재한다는 사고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에 생겨났다. 그렇지만 이미 고전주의 시대의 많은 작가들은 작품이나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구스타브 쿠르베는 정치적 담론을 예술 안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현실주의자의 선언문」까지 작성했다. 나는 예술과 정치 사이의 경계가 대체로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미학은 ‘감정, 감각적 인지’라고 정의되며, 임마누엘 칸트는 그것에 관한 연구를 『판단력 비판』이라고 이름 붙였다. 나는 판단력이 예술과 정치를 더욱 견고하게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예술과 정치 사이를 잇는 이러한 공통점이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술이 기존의 정치 구조 기반을 약화시킬 비판에 관여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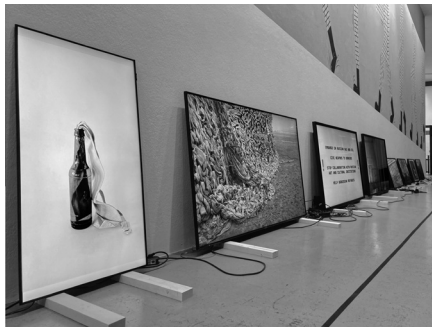
해방이 따라온다. 정치 철학자 샬탈 무페는 “자본주의의 총체적 사회 동원을 막기 위해서는 예술이 사회적 공간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작동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가상 환경의 토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예술의 잠재성인데, 예술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 놀이, 커뮤니티 연결 등의 도구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 분야에 모두 침투 가능하다.

반면 예술이 권력의 이익을 위해 작동할 때 예술과 정치 사이의 연결은 부정적인 면이 된다. 여러 독재주의와 전체주의 정권은 예술을 통해 스스로를 ‘미학화’ 하였고, 그런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렉산드르 코마로프(AWC) 예술은 규칙적인 시스템 안에서 자기반성을 가능케 하고 여러 방향성을 결합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고립 속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로만 비치지 않도록 질문을 확장하려고 노력한다.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각각의 협업은 공동체를 고민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동시에, 하나가 아닌 다양하고 즉흥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을 창출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 플랫폼이 선언문으로만 읽히길 바라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것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술의 특정한 부분이다. 우리는 작가들에게 새로운



AWC, 《전쟁 중의 비인간 개체(Non-Human Agents During The War)》, 도큐멘타 15, 카셀 도큐멘타 홀, 2023. AWC 제공



AWC, 《전쟁중의 비인간 개체(Non-Human Agents During The War)》, 도큐멘타 15, 카셀 도큐멘타 홀, 2023.
작품(왼쪽부터): 스테판 클라인, 조아 라크티오노바, 나스티아 테오르, 클레멘스 V. 웨데마이어 외. AWC 제공

공간이나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새로운 공간이나 역할의 존재를 보여주고
인지하자는 거다.

조한울(SMB) 아시아의 비엔날레는 서구에 비해
역사는 짧으나,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였다. 근래
들어 서구 위주의 미술 담론과 이론에 의구심을 표하며,
아시아성과 아시아의 근대성에 관한 문제를 주목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시도들이 있다. AWC는
아시아에서의 비엔날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알렉산드르 코마로프(AWC) 아시아는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가지며, 아시아의 국가들은 그만의 독특한
경험과 서사를 지니고 있다. 비엔날레는 특정 영토나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는 작가와 문화 기관들 간의 연계를
통해 그러한 관점을 탐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예가 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북한과 남한은 1950년 이후 여전히
전쟁 중인, 혹은 휴전 상태에 있고, 비슷하게 중국과
인도는 평화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이며, 러시아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은 역사적, 지정학적,
문화적 차원에서 매우 복잡하다. 우리는 이들 지역을 더
알아가고 싶고, 작가들과 문화 기관들이 계속되는 긴장을
마주하며 어떻게 방향을 찾아나가는지 이해하고 싶다.
우리에게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시에 우리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유럽의 미래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 전쟁은 한 국가가
다양한 천연자원의 획득과 주변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감춘 채 다른 국가의 영토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식민지적 욕망을 드러내는 전쟁이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문화 단체를 만나
그들의 시각, 창의적 대응법,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처럼 마주한 특정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창의적
대응법, 그 외 여러 수단을 지칭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국제문화예술노동연합은
나타샤 치차소바, 레나 프렌츠, 막심 티민코, 발렌티나
키셀로바, 안나 치스토세르도바, 안토니나 스테부르,
알렉산드르 코마로프, 타티아나 코추빈스카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콜렉티브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개방형 플랫폼
antiwarcoalition.art는 전세계 예술가들의 전쟁 반대
선언을 수집, 공유, 배포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러시아의 침략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시작된
이 플랫폼은 전쟁, 독재,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러시아의 군사 침략에 영향을 받은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식민지, 가부장제, 제국주의, 그리고 정치적
억압과 테러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발행인 최은주
편집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글 막심 티민코, 안나 치스토세르도바,
안토니나 스테부르, 알렉산드르 코마로프,
타티아나 코추빈스카(AWC); 조한울(SMB)
번역 이수진
영문감수 앤디 세인트 루이스
디자인 마바사(안마노, 김자섭)
인쇄, 제작 세걸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메일 소식 구독을
원하시면 아래 QR코드를 따라 신청해주세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contact@mediacityseoul.kr
mediacityseoul.kr



AWC(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국제문화예술노동연합),
《유럽 파빌리온(The European Pavilion)》, 로마의 괴테 인스티튜트.
작품: 레만 세브다 다리지오을루, 〈어둠에서 온 유년기 동화〉. AWC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8월호 『연대』

AWC(아프리카와 연대하는 국제문화예술노동조합),
《유럽 파빌리온(The European Pavilion)》, 로마의 고대 인스티튜트.
작품: 레만 세브다 다리자옴루, 《아동에서 온 유년기 동화》, AWC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